



강진, '위드코로나 관광지'로 인기

시 '오메, 단풍 들것네'로 가을이 오는 격정과 감수성을 단박에 담아낸 영랑 김윤식의 생가가 있는 곳이 강진이다. 남도 답사 1번지로 알려진 강진은 이제 맘만 먹으면 수도권에서 한 나절이면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됐다. 이 곳이 코로나 국면에 소규모 힐링을 찾는 관광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며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올 가을 '위드코로나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감성 여행지 강진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메! 단풍 들것네... 영랑·다산도 반한 그 곳

영랑의 시심을 키운 강진은 코로나로 메말라가는 감성을 되살리는 가을철 감성 여행지로 제격이다. 영랑 생가 입구를 지키는 은행나무의 황금빛 자태가 경이롭다. <강진군 제공>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조선시대 비밀정원 백운동 원림  
영랑생가 뒤로 호젓한 산책길  
다산이 머문 사의재, 한옥체험관 변신  
다산초당서 녹차 한 잔...  
자연·역사·체험 등 감성 여행지 최고

서울, 광주, 영암에서 내려오는 강진의 입구에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월출산이 있다. 강진군의 동쪽은 탐진강을 사이에 두고 장흥군과 통하며 서쪽은 목포시, 남쪽은 고금대교를 건너 완도와 접하고 있다. 강진은 '사람인(人)' 모양으로 평야와 산과 바다를 모두 품은 아름다운 고장이다.

강진의 관문인 월출산은 산의 북쪽은 영암군에 남쪽은 강진군에 걸쳐 있다. 흔히들 영암 월출산으로 부르지만, 월출산은 강진을 품어 안고 영암을 등지고 있는 형국으로 강진의 월출산이기도 하다. 강진에서 월출산으로 오르는 입구는 '경포대 탐방로'라고 안내되어 있다. 경포대는 월출산 아래 계곡 이름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계곡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입구를 지나면 등산객이 가져온 배낭의 무게를 재볼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발 피로를 풀 수 있는 자그마한 족욕탕이 있다.

월출산 아래 자리 잡은 무위사(無爲寺)는 천년이 훌쩍 넘은 고찰로, 단아함속에 웅장함을 갖췄다. 일주문을 오르면 절은 부채처럼 퍼지며 장엄한 자태를 드러낸다. 극락보전에는 국보 제13호 극락전과 보물 제507호 지정된 선각대사 편광탑비가 있다. 삼존 불상 뒤로 아미타여래삼존벽화(국보 313호), 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1314호), 벽사면벽화(보물 1315호) 등 불화가 모셔져 있다. 무위사 보제루(普濟樓)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눈앞에 수목화를 펼쳐놓은 것처럼 멀고 가까운 산의 전경들이 아스라하다.

무위사에서 강진다원을 가로질러 백운동 원림까지 이어지는 길에 1.5km 초록의 녹차밭이 눈을 정화시킨다. 강진다원에 차를 두고 걸어서 백운동 원림을 둘러볼 수 있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중기 선비들의 은거문화를 알려주는 전통 정원으로, 담양 소재원, 보길도 부용동 원림과 호남의 3대 원림으로 일컬어진다. 조경사적 가치가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며, 월출산을 배경으

로 지형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며 계곡물을 끌어온 경관처리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림으로 가는 길에는 왕대나무 1만 그루가 병정처럼 서 있고, 숲길을 헤치고 가면 비밀 정원처럼 백운동 별서정원이 나타난다. 정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을빛을 머금고 그대로 익어 버린 흥시가 주인 없이 '복' 하고 떨어지는 풍경이 마음에 평화를 선사한다. 인근에 떨어진 밤을 줌은 주민 한 두 명이 있을 뿐, 사위는 고요하다.

강진의 북쪽 끝인 백운동 원림에서 강진군의 주 생활권인 강진읍으로 내려오면 강진군청 바로 뒤에 영랑생가가 여행자들을 반긴다. 군청과 영랑생가 사이에는 강진군관광안내센터가 있어, 강진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랑생가 안에는 김윤식의 초상화가 있고, 지금은 비록 모란꽃은 졌지만, 시인이 보고 시상을 떠올렸을 모란들이 소박하게 몸을 맞대고 있다. 생가 입구를 은행나무가 지키고 있으며 문안으로 들어서면 그 짝이 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더 있다. 영랑생가는 1985년 강진군에서 사들여 안채와 사랑채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관리 중이다.

영랑생가 뒤로 난 계단을 오르면, 각국의 모란들이 나라별로 정원을 이룬 모란공원을 만날 수 있다. 모란공원의 산책로는 길지 않지만, 자그마한 인공 폭포도 있고 호젓한 산책길로 손색이 없다. 모란공원은 지역민들만 아는 숨겨진 명소로 영랑생가와 함께 둘러볼 만하다.

시내권에서 다산이 유배되어 처음 4년을 머물렀던 주막인 사의재를 찾았다. 영랑생가에서 사의재는 300m 거리로 지척이다. 유배 온 죄인을 받아주는 곳 없어, 동구 밖 주막에서 모녀의 배려로 임시 머물렀던 이 곳을 다산은 '사의재(四宜齋)'라 명명했다. 사의재는 '마땅히 네 가지를 지켜야 하는 방'이라는 뜻으

로 네 가지는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 등을 의미한다.

사의재는 2007년 강진군에서 강진읍 동성리 옛터에 복원해, 현재는 객실 9곳을 갖춘 한옥체험관으로 꾸며져 있으며, 예약을 통해 일반인도 머무를 수 있다. 사의재 내에 있는 동문주막에서 다산이 즐겨 먹었다는 아유국과 바지락전이 함께 올라오는 '다산정식'을 2만4000원(2인 기준)으로 즐길 수 있다.

읍내권에서 사의재까지를 둘러보고, 다시 차를 달려 다산초당으로 향한다. 백련사, 다산초당, 다산유물전시장이 함께 있어, 같이 둘러봐야 하는 코스이다. 백련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절을 둘러본 후 다산이 그의 학문적 파트너였던 백련사의 혜장 선사를 찾아갔고, 혜장선사가 다산을 향해 걸었던 오솔길을 따라가면 다산초당이 나온다. 느린 걸음으로도 40분이면 족하다. 길은 좁았다 넓어지고 완만하다 가파르게 이어지지만, 이름 모를 새소리와 청명한 바람이 머리를 식혀주기에 충분하다. 나무의 뿌리들이 주름처럼 선명히 드러나 계단처럼 형성되어 있다. 다산초당 아래에서 올라오는 길 역시 뿌리들이 켜켜이 길을 잡아준다. 이름하여 '뿌리의 길'이다.

다산초당에서는 문화해설사가 옥색의 한복을 입고 앉아, 유독 차를 사랑했던 다산의 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녹차 한잔을 따라준다. 차는 무한 리필이며 1인당 1000원의 체험비를 받는다. 차 체험은 10월 말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자연과 역사, 체험이벤트, 맛집 등 여행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여행지가 강진이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명품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진에서 힐링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백운동 원림 가을 풍경.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